



「2022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시험대비」

권지수 교육학 공개모의고사 및 해설(3)

| 권지수 교수 | 박문각임용고시학원

[권지수 교육학 공개모의고사 모범답안]

제공: 권지수 교수

최근 코로나19의 장기간의 확산으로 인해 학생 간 학업성취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학교현장에서는 이해중심의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풍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기초능력의 결손을 보완할 교수방법의 보완이 있어야 하며, 다양한 평가 방식을 활용하여 개인별 학습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나아가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역량을 함양해 줄 교사의 초우량 지도성의 발휘도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

제시문의 교사협의회를 토대로 학생의 학업성취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적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학생의 학업성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교육과정의 설계와 풍부한 학습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다.

A 교사의 의견에 제시된 교육과정의 설계 방식은 교육목표 설정 이후 수업계획보다 평가계획을 앞세워 설계하는 백워드 설계 방식이다.

백워드 설계에서 선정해야 할 교육내용은 국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 되는 중요한 개념(big idea)이다.

백워드 설계 방식은 중요한 개념과 원리를 교수학습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아 평가계획과 수업계획에 연결시킴으로써 학생의 심오한 이해를 신장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아이즈너(Eisner)의 교육과정 개발모형에 근거할 때, 학생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필요하다.

첫째, 교사의 교육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목표와 내용을 개별 학생들에게 의미 있고 적합한 형태로 변형해 주어야 한다. 둘째, 학생과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시적, 은유적 표현 등 다양한 의사소통 양식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처럼 학생의 이해를 강조하는 교육과정의 설계와 풍부한 학습기회의 제공이 있을 때 학생의 학업성취 격차를 해

소해 나갈 수 있다.

교수방법 면에서는 학생의 기초능력의 결손을 보완하고 완전학습에 이르도록 하는 전략도 학생의 학업성취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적 과제가 된다.

B 교사가 제시한 교실 수업과 e-러닝을 혼합한 수업방식은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이다.

블렌디드 러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학생의 학습 스타일이나 내용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혼합해 제공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둘째, 학생은 강의 수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자신의 학습진도나 수준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학습과정을 조절·통제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B 교사가 제시한 블렌디드 러닝에 적용된 수업의 원리는 개별화 교수체제(PSI) 원리이다. 이는 프로그램 학습을 발전시켜 다인수 학급에 적용한 것이다.

교수학습에서 학생의 교수이해력과 학습지속력을 높여 주려면 교수의 질을 재구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학습과제를 세분화하여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열화하여 제시해야 한다.

이처럼 학습결손의 보완을 위한 적절한 교수 전략적 처방이 있을 때 학생의 학업성취 격차를 해소해 줄 수 있다.

학생의 학업성취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 방식을 활용하여 개인별 학습을 지원해 주는 일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C 교사가 제시한 진단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진단평가의 궁극적 목적은 학생의 특성에 적절한 교육내용과 교수전략을 투입함으로써 교수-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

또,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전인적 평가도 필요 한데,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수행평가를 들 수 있다.

수행평가는 학생의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인적인 평가를 중시한다.

그리고 학생 개인의 개별화 학습을 촉진하는 개별화 평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지향평가이다. 초기의 성취수준에 비추어 얼마나 성장하였느냐에 관심을 두어 평가한다. 둘째, 능력지향 평가이다. 학생 개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에 관심을 두어 평가한다.

이와 같이 개인별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평기를 활용하여 학생의 학업성취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한편,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역량의 형성을 위한 교사 지도성의 발휘는 학생의 학업성취 격차 해소를 위한 토대가 된다.

D 교사가 강조한 지도성은 구성원의 자율적 지도성을 개발하는 초우량 지도성이다.

초우량 지도성은 구성원을 셀프 리더로 만드는 것이므로 교사는 외적 통제나 간섭보다는 자기지도적인 내적 통제를 중시하며 학생의 자율적 통제와 동기를 일깨우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동료교사와 함께 초우량 지도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활용할 수 있다.

동료교사와 함께 학생의 자율적 지도성 형성을 가치와 비전으로 공유하고, 교사 상호 간에 협력적인 학습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적용을 통해 교사의 초우량 지도성을 신장시켜 나갈 수 있다.

이처럼 교사의 초우량 지도성의 발휘는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역량과 자율적 학습 능력을 갖추게 해 줌으로써 학생의 학업성취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현장에서는 학생 간 학업성취 격차의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의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풍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기초능력의 결손을 해소할 교수방법의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며, 다양한 평가 방식을 활용하여 개별 학생의 학습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나아가 교사는 초우량 지도성을 발휘하여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학생을 혁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